

Issue Comment

- ✓ 모뉴엘 대출 사기 건 소송에서 관련 은행과 무보의 책임비율 50:50의 중재안 수용 결정
- ✓ KB국민, 기업은행, KEB하나은행의 소송 관련 수익 (충당금 환입, 지연이자 등) 반영될 전망

은행: 모뉴엘 소송 관련 중재안 수용으로 일부 은행의 환입 예상

- 한국무역보험공사 (이하 무보)는 모뉴엘 대출 사기 건과 관련하여 6개 은행 (KB국민, KEB하나, IBK기업 등)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. 이로써 각 은행과 무보의 책임비율이 50:50으로 등분됨
- 모뉴엘 exposure를 전액 충당금 전입했던 KB국민은행, 기업은행은 50%의 책임비율 및 지연이자 등을 감안 시 각각 300억원 초반대, 300억원 중후반대의 수익 (충당금 환입, 지연이자 등)을 반영할 전망. KEB하나은행은 2016년 말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충당금을 100% 전입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100~200억원 수준의 수익 (지연이자 등)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됨
- 사건 배경: 2014년 파산한 모뉴엘의 사기 대출 건으로 손실을 입은 각 은행이 무보에 수출보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, 무보가 면책 사유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이 진행됨. 소송을 제기한 은행들 중 상장사의 현황은 KEB하나은행 1심 승소, 기업은행 1심 부분승소 (25%만 인정), KB국민은행 1심 진행 중이었는데, 법원이 각 은행과 무보의 책임비율을 50:50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은행들이 이를 수용한 바 있음. 이번 무보의 수용에 따라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서 동등 책임으로 마무리됨. 이에 exposure의 50% 이상을 비용 처리했던 은행은 초과분만큼의 환입(+지연이자)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